



# TRUMP 2.0 이민자들 '발등에 불'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스페인어 라디오와 TV,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예고 허가없이 입국한 1130만명 美 정부에 망명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고 불법 체류 학생들 '예의주시'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비야 코말티틀란에서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고 있는 미국행 이민자 행렬. /연합뉴스

방대한 자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Barack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대학들은 유학생과 불법 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대학은 학생들이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법을 고려했고 있다. 에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언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취임 전에 미국에 와있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서 북한군과 교전”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밝혀... 전 장관 “전쟁 빨리 끝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면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라며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은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 20일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 매체 글로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새드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관련 정보의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드미트리 콜레바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은 지속적인 휴전 협상을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도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스톰새드 순항미사일' 러시아 쿠르스크 공습. 자료: WSJ, RBC 우크라이나, 글로브 디펜스 코퍼레이션

콜레바 전 장관은 전쟁이 조속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압력에 굴복해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다. 한편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도 투입됐다는 미국 CNN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밤부터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인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S-400 첨단 방공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군 제1490 미사일 연대가 사용하던 S-400 방공시스템 한 대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러시아, 한국에 '강력 경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땀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무모한 조치 자제를”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美의회 가상화폐 업계 입김 세지나

친가상화폐 의원 300명 달해

이달 초 치러진 미국 상·하원 선거 결과, 친(親)가상화폐 의원 약 300명이 의회에 포진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가상화폐 로비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가 입법 의회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CNBC는 평가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만든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과 가상화폐 업계가 이번 선거 기간 총 2억4500만달러(약 3427억원)를 모금해 친가상화폐 후보를 지원했다.

가상화폐 업계가 이번 선거에서 친가상화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슈퍼팩 중 하나인 슈퍼팩 페어셰이크는 후원한 후보 56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주요 의석을 확보하

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으로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세러 드 브라운(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승리한 무명에 가까운 사업가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 당선인이다. 브라운 의원은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장해온 반면 모레노 후보는 가상화폐를 적극 지지해왔다.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는 의회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대거 자리하게 된다. 정부호출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 갈 길은 어느나 / 가다가 길 잃거든 / 나를 보고 가거라 /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